

[]

	이전	고대	중세	조선	개항·일제 강점	현대사	합계
정치	2 (고조선, 사실과 기록의 역사)	2 (소수림왕, 백제)	1 (충선왕)	1 (임진왜란)	6 (1920년대 독립운동, 의열단, 지세령, 1890년대, 근대적 조약, 갑신정변)	1 (모스크바 3상회의)	11
문화		1 (풍수리지)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1 (이황)			3
경제		.	1 (전시과)	1 (대동법)			2
사회		1 (진골)	.	1 (사회제도)			2
합계	2	4	3	4	6	1	20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2016년 국가직 필기시험이 4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긴장 속에 시험 보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높았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원칙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기에 앞서 우선 문제의 출제 범위부터 살펴보면(위의 표를 참고) 선사시대와 여러나라의 성장 파트를 별도로 하고 분류하였을 때, 정치사 11문항·문화사 3문항·경제사 2문항·사회사 2문항 등이 출제되어 고대 이전 시기의 고조선 문항을 포함하면 여전히 정치사의 비중이 60% 정도로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사 12 문항 중 7문항이 근현대사에서 출제되어 사실상 전근대사만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정치·경제·문화사의 비중이 고루 출제되어 오히려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치사의 비중이 상당히 낮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빈도가 낮았던 역사의 이해가 한 문제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전근대사는 고루 출제되었으나 근현대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합격선은 85점에서 90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고대사 이전 영역은 역사의 이해와 관련하여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고조선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창해군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혼란스러웠던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정치 2문항·사회 1문항·문화 1문항이 정치사에서는 고구려의 소수림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백제의 형성과 멸망 과정에 대한 시기 문제가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하게 한 문항들이었습니다. 고대 문화사와 관련해서는 풍수지리설과 도교를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되어 까다로울 수도 있었으나 기존 문제들에서 자주 언급한 내용이라 그래도 무난하게 풀어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대 사회사에서는 진골 신분층에 대한 사실을 묻는 문제로 신라의 골품제와 관련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고대사 파트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세사(고려)의 경우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정치사에서 충선왕과 관련한 사실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고 문화사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경제사에서는 전시과 제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이 역시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세와 근대태동기(조선)의 경우 총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문화사에서 출제된 이항에 관한 문항을 제외해 놓고 보았을 때 모두 근대태동기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치사는 임진왜란의 발생 순서를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역시 자주 접근한 문항이라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경제사와 사회사는 대동법과 조선 후기 사회 제도와 관련한 문항으로 이 문항들 역시 자주 언급되었던 문제들이라 큰 고민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사 문항의 경우 사료를 통해서 쉽게 이항임을 알 수는 있었으나 선지 자체는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이항의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항의 주리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자신 있게 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항과 일제 강점기의 경우에는 예상 외로 총 6문항이나 출제되었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 이 파트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낙담하였을 것 같습니다. 출제된 문제들은 1920년대 독립운동, 의열단, 1898년부터 1899년 사이에 발행된 매일신문, 토지조사사업, 갑신정변, 근대적 조약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에 관한 문항은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들이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한 수험생들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열단 문항은 사료의 내용이 쉽게 의열단임을 알 수 있었으나 경성 부민관과 임시 정부 요인과의 제후 등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매일신문의 경우, 매일신문이 발간된 해를 알고 있었다면 확실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였으나 모른다하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의 경우 선지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나 긴장하지 않고 시험에 임하였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3번 선지는 1918년에 개정된 지세령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어 기본서를 꼼꼼히 확인한 수험생들이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경우 다른 문항들처럼 사료 자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선지 자체가 꽤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정동구락부 등의 내용이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어 이 문항 역시 기본서를 꼼꼼히 확인한 수험생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듯 합니다.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 협약은 자주 언급되었던 문항이라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인 모스크방 3상회의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 국가직 공채 필기 시험은 최근까지 진행된 시험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입니다. 9급과 7급의 경계에서 출제가 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곤혹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빠르게 정리 위주로만 공부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해동한국사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어,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및 해설 】

문 1.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 삼국사기 -

- ①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 ②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 ③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 ④ 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1. 정답 : ③

제시된 사료에서 밑줄 친 왕은 소수림왕이다.

- ③ 소수림왕은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의 보급과 문화의 향상을 가져왔다.(372)
- ① 영양왕에 대한 내용이다. 고구려에는 『유기』 100권이 있었는데, 600년(고구려 영양왕 11년)에 이를 고쳐 『신집』 5권을 새로이 편찬하였다.
- ② 고국천왕에 대한 내용이다. 고국천왕 때 흉년과 고리대로 인하여 몰락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춘대추납(春貸秋納)의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 ④ 영양왕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10년에 고구려왕이 승려 담징(曇徵)과 법정(法定)을 바쳤는데, 담징(曇徵)은 5경(五經)을 알고 또한 채색 및 종이와 먹을 만들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 2.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중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 ②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 ④ 한국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2. 정답 : ④

- ④ 동경성 전투는 1933년에 일어났다. 혁신 의회 산하의 한국 독립군은 사령관 치청천을 중심으로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중 · 한 토일군을 조직하여 쌍성보 전투(1932), 사도하자 전투(1933), 동경성 전투(1933), 대전자령 전투(1933)에서 일 · 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① 신민부 결성은 1925년 3월이다. 신민부는 대한 독립군단과 대한 독립 군정서 등 자유시 참변 이후 귀환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북만주에서 결성되었다.
- ②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일어났다.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 안무의 국민회군 ·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이 연합 작전을 펼쳐 봉오동에서 일본군 500여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③ 국민부 결성은 1929년 4월이다. 1927년 3부의 간부들의 일제에 체포되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앙 집권적 유일당을 추구하던 3부 인사들(촉성회파)을 중심으로 혁신 의회(1928. 12)가 북만주에서 조직되었고, 이듬해 각기 단체를 인정한 가운데 통합 기구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던 3부 인사들(협의회파)을 중심으로 남만주에서 국민부(1929. 4)가 성립되었다.

문 3.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은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 일성록 -

- ①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
- ②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 ③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 ④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3.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 경재소는 중앙 관직에 오른 현직 관료에게 자기 출신 지역의 유향소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 수도에 설치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36년(1603)에 폐지되었다. 유향소는 각 군현에 향촌 사족 유지들로 구성된 자치 기구이다.

① 조선 후기에는 양반은 군현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가 많이 세워졌다.

② 18세기 이후 점차 종래 재지 사족의 힘이 약화되고, 부농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향촌 세력의 힘이 강해지지 못한 가운데,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종래 재지 사족인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화하였다.

④ 18세기 중반부터 부세의 공동 납부 형태인 총액제 수취권에 대한 향촌 지배권을 두고 구향(사족)과 신향(향리) 간에 향전이 발생하였다.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문 4.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 ①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②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 ③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 ④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4. 정답 : ③

제시된 사료에서 밑줄 친 이 사람은 이황이다.

③ 이황은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계승하여 이귀기천론(理貴氣賤論)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완전한 기(氣)보다는 완전한 이(理)를 중시하였다.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理)로 돌아가기 위해 인간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 ① 조식에 대한 내용이다. 조식은 1568년에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에서 서리망국론을 제시하여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② 이이에 대한 내용이다. 6살 때 서울 본가로 온 이이는 이후 과거에서 9번이나 장원을 하면서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고 불렸다.
- ④ 서경덕에 대한 내용이다. 서경덕은 이(理)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도교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는데,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문 5.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 ②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 ④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5. 정답 : ②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단체는 의열단이다.

- ② 대한 애국 청년 단원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등은 1945년 경성 부민관에서 전시 선전과 동원

을 위한 ‘아시아 민족 분격 대회’가 개최되자, 부민관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전시 선전과 식민 통치에 저항하였다.

① 의열단은 일제 식민 지배 기관을 파괴하고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와 친일 인사를 처단하였지만 개별적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적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이후 의열단은 1932년에 독자적으로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고, 중국 지역 내의 독립 단체를 규합하여 1935년 조선 민족 혁명당 결성을 주도하였다.

③ 의열단원 김지섭은 1924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국회의에 일제 총리를 비롯한 많은 대신과 조선 총독이 참석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 입구하고 제국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총리 등 요인을 처단하기 위해 도쿄에 도착하였지만 제국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바꿔 일본의 궁성을 폭파하기로 계획하였다. 1924년 동경 궁성 니주바시에 3개의 폭탄을 투탄하였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④ 의열단원 김상옥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제휴하여 의열 투쟁을 준비하였고, 1923년 종로 경찰서에 투탄 후 일본 군경과 총격전 끝에 자결하였다.

문 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중략)...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 매일신문 -

- ①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 ②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 ③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④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6. 정답 : ③

제시된 내용은 대한 제국 시기이다.

③ 중추원은 본래 갑오개혁 때 국왕 자문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유명무실화된 상태였고, 이후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 당시 주목되었으나, 결국 의회로 개편되는 데 실패하였다.

①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환궁하여 경운궁(덕수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② 대한 제국은 김중환 등 고위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성은행, 심상훈, 민병석 등의 정부 고급 관료들과 김두승의 실업가들이 발기인으로 참가한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④ 대한제국 시기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1899).

문. 7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하였다.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주택·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 지리적 사상이다. 아울러 지리적 요인을 인간의 길흉 화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연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 ①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 ②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 ③ 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 ④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7.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사상’은 풍수지리설이다.

④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고려시대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醺祭)가 성행하였는데, 예종 10년(1115)에 도교 사원(복원궁)을 처음 건립하였으며, 이곳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늘과 별들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를 개최하였다

- ① 풍수지리설은 경주 중앙 귀족들의 부패와 무능, 지방 호족들의 대두, 오랜 전란에 지쳐 통일의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들의 인식을 종합하였다.
- ② 풍수지리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국토 관념을 비판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신라 중앙 정부의 권위와 통제력을 약화시켰으며, 각 지방에서 호족이 나타나게 된 사상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 ③ 고려 시대에는 개경·서경 길지설이 널리 유행하였으며,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면서 서경 천도 및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경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문. 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시정 전시과 (경종 1년, 976)	⇒	개정전시과 (목종 1년, 998)	⇒	() (문종 30년, 1076)
------------------------	---	-----------------------	---	-------------------------

<보기>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ㄴ.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8.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 제도는 문종 대의 경정 전시과이다.

ㄴ. 귀족이나 관료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이 심화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게 되자, 공음전(5품 이상)과 한인전·구분전(6품 이하)을 제외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경정 전시과를 마련하였다.

ㄷ. 경정 전시과는 개정 전시과에 비해 토지 분급량이 더욱 축소되면서 제15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다.

ㄹ. 경정 전시과는 무신에게 지급된 과등이 크게 향상되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데, 이는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거나, 이들이 담당할 직역이 고역(苦役)이라는 점을 감안해 준 결과로 파악된다.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분급한 것은 경종 대의 시정 전시과이다.

문. 9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	(나)
기원전 2333년 단군의 등장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보기>	
ㄱ. (가) -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ㄴ. (가) -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ㄷ. (나) -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ㄹ. (나) -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9. 정답 : ①

ㄱ.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무렵 대부(大夫)라고 표현된 별도의 관(官)까지 두고 있었으며, 위만이 망명해 왔을 때 박사(博士)라는 관직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직임이 부여된 직능인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외에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 특별히 파견하는 지방관을 지칭한 경우도 있다.

ㄷ. 위만이 집권한 이후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준왕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철기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의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ㄴ.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예군(濊君) 남려(南閼)가 28만 구(口)를 이끌고 위만조선의 예속에서 벗어나 한의 요동으로 내속하자 (기원전 128), 한 무제는 그 땅에 창해군(蒼海郡)을 설치하였으나 토착민의 반항에 못견뎌 수년 후에 폐지하였다.

ㄹ. 위만 집권 이전의 내용이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군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북방형) 고인돌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으며, 미송리식 토기와 거천무늬 거울의 출토 지역도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케 해 준다.

문. 1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 %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10.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법령은 1912년 공포된 토지 조사령이다,

② 토지 조사 사업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지목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농민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하였다(기한부 신고제).

① 토지 조사 사업은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재조정을 통하여 식민 통치를 위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토지의 매매·저당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인의 적극적인 토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③ 지세령에 대한 내용이다. 1913년부터 1년간 지세는 44.7%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미곡 가격은 폭락하여 1914년 이후 3년간 지세 체납으로 인해 차압을 당해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이 36,061명에 달하였다. 1918년 6월 지세령이 새롭게 만들어져 지가의 1000 분의 13(1.3%)을 지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④ 한일 병합 이전의 내용이다.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은 대한제국이 1906년(대한제국 광무 10년) 칙령 및 법부령(法部令)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확대를 허용한 법령을 말한다. 이 법령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개항장 등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었던 것을 폐지하고 국내 어디에서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법령과 한일 병합 이후 시행된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의 토지 경제는 제도적·실제적으로 완전히 일본에게 장악되었다.

문 11.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① (가)-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 ② (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 ③ (나)- 민족적 자주의를 고양하였다.
- ④ (나)-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11.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가)는 삼국사기, (나)는 삼국유사이다.

③ 일연의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① 『삼국사기』는 고구려는 호전적인 국가로, 백제는 속임수가 많았던 국가로 비판하였으며, 고구려·백제와 연결되는 고조선·삼한의 역사를 삭제하는 등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②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고수하면서 신라 계승 의식을 반영하였다.

④ 『삼국유사』는 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이는 『삼국사기』가 불교 및 비합리적 신이사를 일부러 삭제하거나 수정해 실었던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이전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

문.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①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③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④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12.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사림원 설치’, ‘소금 전매제 실시’ 등을 통해서 밑줄 친 ‘그’는 충선왕임을 알 수 있다.

① 충선왕은 원나라에 학문 연구소인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이제현과 원의 조맹부 등의 학자들이 학문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충렬왕 대의 사실이다.

③ 우왕 대의 사실이다. 명(明)은 공민왕 때 수복한 철령 이북의 땅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해 최영은 즉각적인 출병을 통해 요동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성계는 4불가론을 제시하며 출병에 신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공민왕 대의 내용이다. 공민왕은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과 세력을 숙청하였으며, 원의 내정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친원 세력의 연락 기구였던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 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 를 배우는 것이다.

- 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 ②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 ③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 ④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검토해 본다.

13.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 비판’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 ① 사료에 있는 역사적 사실(事實)이 모든 역사적 사실(史實)일 수는 없다. 사료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史實)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역사가의 사료비판 작업을 거쳐야 한다.
- ② 예를 들어 전시 검열이나 독재 체제하의 문서 있는 풍자나 비유, 수사법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는 단순히 문맥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 ③ 사료 비판은 사료 연구자가 사료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으로 사료의 내용은 의식적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 선택된다. 즉,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역사가의 사관, 또는 가치관을 분석해야만 한다.
- ④ 사료 비판에 있어 교차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교차 검토에 있어 같은 사건을 두고 각기 어떠한 관점과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 해석 검토해야 하며,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의미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문. 1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③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14.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19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문에 해당한다.

- 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3상 회의)에서는 한국 임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임시 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하여 4개국(미,영,중,소)에 의한 최고 5개년간의 신탁통치 등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가 개최되었다.

② 건국준비위원회(건준)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조선건국동맹이 개편된 조직으로 시기상,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의 사실에 해당한다.

③ 유엔 감시하의 남한에서 실시된 총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5.10 총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아닌 UN소총회의 결의(1948.2.26.)에 의해 시행되었다.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된 것은 광복 직후의 사실로, 이 또한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의 사실에 해당한다.

문. 15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중략)…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 윤치호일기 -

①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②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③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④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15. 정답 : ④

문제의 밑줄 친 사건은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1884)에 해당한다.

④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파가 청의 내정간섭에 따른 개화정책의 침체 등에 불만을 품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으킨 정변에 해당한다. 당시, 급진개화파는 제물포 조약 체결 이후 공사관 경비를 목적으로 주둔한 일본군의 협조를 약속받고 대외적으로 청·프전쟁의 발발로 조선에 주둔한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자 정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청군에 의해 3일 만에 진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은 수적 열세로 인해 청군에 패퇴하였다.

① 정동구락부는 1895년경 서울 정동(貞洞)에서 개화파 정치인들과 서구 외교관들이 사교와 친목 도모를 내세우며 만든 모임을 말한다. 이들 세력은 이후, 독립협회(1896~1898) 창설을 주도하였다. 정동파를 구성했던 친미, 친러파 정치 세력들은 반일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였으나 아관파천 이후 각기 자신들의 정치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대립하였다.

② 갑신정변을 주도한 급진개화파 세력은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주화약에 체결된 이후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갑오개혁)을 강요하였으며, 추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침범하였다.

③ 갑신정변은 3차 수신사였던 박영효를 따라 일본에 갔던 김옥균이 차관도입에 실패하면서 내렸던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차관 도입 실패는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므로 결과라고 언급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문. 1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일 통상장정(1876)－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②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③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 ④ 한·청 통상조약(1899)－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16. 정답 : ①

- ① 조·일통상장정(조·일무역규칙, 1876)은 강화도 조약 직후 체결된 부속조약 중 일부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재해나 변란으로 인해 곡물 유출을 금지해야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개항장과 영사관에 통보하고 곡물 유출을 금지할 수 있는 방곡령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②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1882)은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것으로 청국 상인을 대상으로 도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내지통상권을 허용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국 상인은 양화진을 중심으로 개잔무역을 행하였다.
- ③ 1876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조·일무역규칙)이 1883년 개정되면서 조선 화폐에 의한 관세 및 벌금 납입이 규정되었다.
- ④ 1899년 9월 11일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이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으로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표명하게 되었다.

문. 17 (가)~(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기원전 18년 건국	475년 웅진 천도	538년 사비 천도	660년 사비성 함락	665년 문무왕과 회맹	

- ① (가)－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 ② (나)－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 ③ (다)－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 ④ (라)－북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17. 정답 : ②

(가)는 백제 건국에서부터 개로왕의 전사와 웅진 천도, (나)는 문주왕의 웅진 천도에서부터 성왕의 사비 천도, (다)는 성왕의 사비 천도 이후부터 백제 멸망, (라)는 백제 멸망 직후부터 취리산 회맹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② 마한을 정복하고 요서 지방으로 진출한 것은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사실로 시기상으로 본다면 (가)에 해당한다.

- ① 6좌평 16관등제와 자색, 비색, 청색 등의 공복 제정은 3세기 고이왕 대의 사실에 해당한다.
- ③ 성왕은 538년 사비 천도 이후,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했으나

이후,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을 빼앗겼다. 이후, 성왕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관산성 전투(554)에서 전사하였다.

④ 660년 사비성 함락으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 복신과 도침은 왕자 풍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고 주류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한때는 사비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부흥운동 과정에서 내분 등이 발생하였고 663년 백강(백촌강) 전투에서 왜의 부흥운동 지원군이 나·당연합군에 대패함으로써 결국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하였다.

문.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천 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甲兵)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 신당서 -

- ①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 ②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③ 돌무지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 ④ 식읍·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18. 정답 : ④

제시된 사료와 관련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신분층은 진골귀족에 해당한다.

④ 통일신라의 진골귀족 등은 신라 중대 및 하대의 최상위 신분층으로 신분상 왕실 종친도 포함되기에 식읍을 하사받았으며 직역 수행의 대가로 녹읍 또한 지급받았다. 더불어서 이들은 이외에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장(개인이 소유한 논밭으로 대토지)과 수많은 노비들을 기반으로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하였다.

- ①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6관등 아찬이었던 것은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진골 귀족은 관등 승진의 제한선은 없었으므로 1관등 이별찬까지 오를 수 있었다.
- ② 6두품은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한계로 인해 정치 진출의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도당유학생으로 당나라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당나라로 건너가 수학하면서 빈공과에 응시하였다.
- ③ 돌무지 덧널무덤(적석목곽분)은 4~6세기 마립간 시기의 대표적인 묘제로 문제에 언급된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돌무지 덧널무덤 대신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이 주로 조성되었다.

문. 19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 ㄴ.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ㄷ.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 ㄹ.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ㄴ→ㄹ
- ③ ㄹ→ㄴ→ㄷ→ㄱ
- ④ ㄹ→ㄷ→ㄴ→ㄱ

19. 정답 : ④

- ㄹ.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통해 왜의 수군을 격파한 것은 한산도 대첩으로 1592년 7월 8일에 해당한다.
- ㄴ. 진주대첩에 대한 내용으로 시기상 이는 1592년 10월 5일~11일에 해당한다. 이는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려던 왜군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진주성에서 진주목사 김시민을 중심으로 한 관군이 왜군을 맞아 승리한 전투로, 이 과정에서 김시민은 왜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 ㄷ.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한 조·명연합군이 왜장인 고니시 유키나와가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한 시기는 1593년 1월 6일~9일에 해당한다.
- ㄱ. 행주대첩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시기상 1593년 2월 12일에 해당한다.

문. 2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큼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 ①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 ②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③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④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20. 정답 : ②

밑줄 친 ‘이 법’은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1608)에 해당한다.

- ② 대동법은 광해군 때 최초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숙종 때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까지 100년이 소요되었다. 인조 때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영정법에 해당한다.

- ① 대동법은 종래의 현물 단위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 벼, 돈 등으로 징수하던 것으로 원칙적으로 1결당 12두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공납의 전세화를 의미한다.
- ③ 대동법은 항상 정기적으로 납부하던 상공이 변화한 것으로 별도로 징수하던 별공과 왕실에 대한 진상은 이후로도 현물 납부로 지속되었다.
- ④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전담 관청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